

# 우상 이언진의 비점본 「해람편」 연구

## Study on the Bijombon *Haerampeon* Written by Eonjin Lee

강 순 애 (Soon-Ae Kang)\*

### 목 차

- |                      |   |
|----------------------|---|
| 1. 서 론               | 4. 「해람편」                                    |
| 2. 우상 이언진의 생애        | 5. 비점본 「해람편」의 비점자 이용휴와 남옥                   |
| 3. 우상 이언진의 유고와 문집    | 6. 비점본 「해람편」과 『송목관집』·<br>『송목관신여고』의 「해람편」 비교 |
| 3.1 『우상인보』           |   |
| 3.2 『송목관집』과 『송목관신여고』 | 7. 결 론                                      |

### <초 록>

이 글은 새로 발굴된 우상 이언진의 비점본 「海覽篇」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내용의 전개는 虞裳 李彦瑱의生涯, 虞裳 李彦瑱의遺稿와文集, 「海覽篇」, 批點本 「海覽篇」의 批點者 李用休와 南玉, 批點本 「海覽篇」과 『松穆館集』·『松穆館燼餘稿』의 「海覽篇」, 비교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李彦瑱은 영조 16년(1740)~영조 42년(1766) 사이의 인물로 譯官四家로 알려진 시인이자 역관이다. 우상의 유고는 유일한 필집인 『虞裳剩馥』뿐이며 『虞裳剩馥』에는 李用休와 南玉이 비점을 찍은 「海覽篇」과 일본 사행시의 일기 6편, 시 3편, 편지 5편이 실려 있다. 그중 비점본 「海覽篇」은 영조 40년(1764) 5월 28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壹岐島 선상에서 기술된 五言詩이다. 이 시에는 이언진이 영조 39년(1763) 10월 6일부터 영조 40년(1764) 6월 20일까지 통신사 趙暉을 수행하고 한학역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용휴와 남옥은 「海覽篇」에 각각 靑批·淸貫珠 및 朱批·朱貫珠를 찍어서 해람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海覽篇」은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일본의 지리적인 위치와 그 풍물에 대한 것을, 제2단계는 大阪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과 문명개화를 통해 운집한 세계의 物産들을, 제3단계는 일본인의 편향적인 민족성과 종교 및 서민들의 모습을, 제4단계는 일본과의 선린을 묘사하였다. 마지막장에는 비점본 「海覽篇」과 『松穆館集』 및 『松穆館燼餘稿』에 실린 「海覽篇」의 텍스트를 대조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비점본 「海覽篇」의 본문이 가장 정확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이언진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계, 국어학계, 역사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海覽篇」, 批點本 「海覽篇」, 虞裳, 李彦瑱, 『虞裳剩馥』, 『松穆館集』, 『松穆館燼餘稿』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Bijombon *Haerampeon* written by Lee Eonjin. The analysis of the paper is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i) the career of Lee Eonjin; ii) the manuscripts and collected works of Lee Eonjin; iii) *Haerampeon*; iv) Lee Yeonghyu and Nam Ok; v) and the comparison of the Bijombon *Haerampeon* and *Haerampeon* carried in *Songmokkwanjip* and *Songmokkwansinyeogo*. Lee Eonjin (1740-1766) was a great poet and better known as one of the four great interpreters in Chosun dynasty. *Woosangingbok* was the only manuscripts handed down up to now among the works of Lee Eonjin. *Woosangingbok* ran the Bijombon *Haerampeon*, 6 pieces of itinerary, 3 pieces of poem, 5 pieces of letter. Lee Eonjin visited Japan from the 6th of October, 1763 to the 20th of June in 1764 as a member of Tongsinsa in attendance upon Cho Om (趙暉). He wrote *Haerampeon* vividly with five characters what he observed during his stay in Japan. It was composed on board of Ilkido from the 28th of May to the 8th of June in 1764. After Lee Yeonghyu and Nam Ok reviewed *Haerampeon*, Lee Yeonghyu placed a blue point and circle and Nam Ok placed a red point and circle. Ultimately the result raised the value of *Haerampeon*. *Haerampeon* is to be divided into four parts. Four parts are described below: the first part, the geographic features and products of Japan; the second part, the growth of Osaka city and the cityward tendency of world products; the third part, the racial prejudice, religion, and life; and the fourth part, the good neighborly relations with Japan. Finally, as compared with the proofing and difference of three kinds of text, namely, the Bijombon *Haerampeon* and *Haerampeon* carried in *Songmokkwanjip* and *Songmokkwansinyeogo*, it is approved that the Bijombon *Haerampeon* is the most correct text and has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as a national treasu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contributed for research Lee Eonjin and utilized as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field of bibliographic scienc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historical studies, etc.

Keywords: *Haerampeon*, Bijombon *Haerampeon*, Woosang, Lee Eonjin, *Woosangingbok*, *Songmokkwanjip*, *Songmokkwansinyeogo*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7일

## 1. 서론

虞裳 李彦瑱은 조선조 후기의 역관이자 시인이다. 24세에 역관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27세에 요절했으며 남아있는 것은 불타고 남은 『松穆館燼餘稿』 뿐이다. 그에 대한 논문이 모두 이 문집과 사행록에 남아있는 편린에 의거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인사동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이언진의 남겨놓은 미발표 기록들과 만나게 되었다. 위창 오세창이 비장하였던 것인데 누구의 손을 거쳐서 인사동으로 흘러들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필첩은 필자에게 잠시 맡겨졌다. 책과 그 주인공과 소장자 사이의 묘한 인연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사실에 의거하여 서지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되었으니 기묘한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겉표지는 쪽빛으로 물을 들이고 제목은 '虞裳剩馥'이라고 예서로 써 넣었으며 필첩을 쓴 남색의 천에는 '松穆館辭牘'이라고 전서로 써 넣고 오세창 소장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필첩을 보관한 나무상자에는 '松穆館辭牘'이라고 전서로 써넣었다. 이 필첩에는 李用休와 南玉

이 비점을 찍은 「海覽篇」과 일본 사행시의 일기 6편, 시 3편, 편지 5편이 실려 있다. 그중 비점본 「海覽篇」은 그의 대표작이고, 일기 6편과 편지 5편은 필첩에만 있으며 시 4편중에 3편은 문집에 실려 있고 1편은 새로운 것이다.

현재까지 이언진의 연구는 주로 이언진의 생애와 문학론, 그의 사행에서의 세계인식 등에 집중되어 왔다.<sup>1)</sup> 필자는 새로 발견된 필첩 『虞裳剩馥』 속에 들어 있는 虞裳 李彦瑱의 비점본 「海覽篇」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자 한다.

비점본 「海覽篇」은 원본 필사기록에 당대 문장의 대가인 이용휴와 남옥이 비점을 찍은 것이고, 『松穆館集』과 『松穆館燼餘稿』에 실려 있는 「海覽篇」은 이언진이 죽은지 9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판본간에 차이가 있다. 비점본을 중심으로 하여 두 문집에 실린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그의 대표작인 「海覽篇」의 새로운 평가 및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순서는 虞裳 李彦瑱의 生涯, 虞裳 李彦瑱의 遺稿와 文集, 「海覽篇」, 批點本 「海覽篇」의 批點者 李用休와 南玉, 批點本 「海覽篇」과 『松穆館集』·『松穆館燼餘稿』의 「海

1) 이동순, 李彦瑱 시의 독창성 고찰 -세계관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고전연구』 10집(2004), pp.247-270.  
 鄭珉,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자료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32輯(2003) pp.87-123.  
 全百燦, 松穆館 李彦瑱의 作家意識: 〈衙衙居室〉을 중심으로, 『漢文學研究』 제17집(2003).  
 鄭武龍, 18세기 後半 閔巷詩壇의 文學論 研究: 이언진·洪愼猷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9(1999) pp.249-311.  
 韓泰文, 李彦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國語國文學』 第34輯(1997, 12, 31), pp.41-60.  
 姜東燁, 「虞裳傳」에 투영된 李彦瑱과 그의 世界認識,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1995), pp.55-76.  
 정 훈, 虞裳 李彦瑱의 漢詩 研究, 전북대 대학원, 1995.  
 姜明寬, 朝鮮後期 閔巷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상진, 朝鮮後期 閔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認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李相鎭, 李彦瑱의 「衙衙居室」考, 『韓國漢文學研究』 第12輯(1989) pp.317-348.  
 鄭後洙, 譯官 李彦瑱의 文學觀, 『漢城語文學』 5號(1986), pp.29-41.  
 皮正姬, 李彦瑱의 생애와 詩 研究, 성신여대 한문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覽篇」의 비교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 2. 우상 이언진의 생애

李彥瑱은 영조 16년(1740)~영조 42년(1766) 사이의 인물로 譯官四家<sup>2)</sup>로 알려진 시인이자 역관이다. 一名 湘藻라 하고, 자는 虞裳이며 호는 曇寔, 雲我, 松穆館, 滄起이다. 그의 본관은 江陽(지금의 陝川)이다. 李開의 후손으로 조부인 世倂으로부터 역관집안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李德芳이 關侯(羽)의 사당에 문장 잘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한다. 성품이 슬기롭고 민첩하여 여러 책을 널리 읽었는데 기억력이 뛰어나 눈에 지나치면 빠뜨림이 없고 문장이 넉넉하여 일곱 걸음을 채 못 가 문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李灑의 조카인 李用休(1708-1782)에게서 수학하였다. 영조 35년(1759)에 역과(譯科)에 응시하여 漢學押物主簿로 합격하고 영조 39년(1763) 통신사 趙曦을 수행하고 한학역관으

로 일본에 다녀왔다.

이러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시문과 서예에 능하여 스승 이용휴에게 靈異의 天才로 인정받았다. 그의 시는 자연·영물·회고·풍자·邊塞·宮怨 등 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盛唐의 시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개 수준 높은 걸작들이다. 27세로 요절하였는데 죽기 전 모든 초고를 직접 불살라버려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으나, 초고를 불사를 때 그의 아내가 빼앗아둔 일부의 유고가 『松穆館燼餘稿』라는 이름으로 편집되어 전한다.<sup>3)</sup>

그의 인상과 모습은 일본의 劉維翰<sup>4)</sup>이 쓴 『東槎餘談』에 실려 있다. 그의 인상은 용모가 준수하고 수염이 없었으며 말씨와 웃음소리가 사랑스러웠다. 영오함이 미간 사이로 드러나니 그의 언변은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었다. 고문사에 뜻을 두고 王世貞과 이반룡을 숭상하였다. 하지만 학사와 서기(왕세정과 이반룡)는 속인이라 족히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5)</sup>

그가 왕세정과 이반룡을 숭상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언진의 독서범위는 넓었다. 그

2) 金甲起, 譯官四家論-脫朱子主義의 詩學. 한국문학연구 13집, 동국대, 1990에 의하면, 譯官四家は 일반적으로 洪世泰(1653-1725), 李彥瑱(1740-1766), 鄭芝潤(1808-1858), 李尙迪(1804-1865)을 일컫는다. 洪世泰와 李彥瑱은 통신사행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드날렸고, 李尙迪은 중국사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鄭芝潤은 倭語譯官의 가계에서 태어났으나 가업을 버리고 문인으로 생활하였다.

3) 그의 전기와 생애에 대해서는 일부의 편린만이 전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8, 1991, p.86. ; 李德懋, 靑莊館全著, 卷 34 清脾錄 卷3 李虞裳條 ; ; 李尙迪, 李虞裳先生傳(閭巷叢書 5, p.269)외에 朴趾源의 「虞裳傳」, 金祖淳의 「李彥瑱傳」, 趙熙龍의 「李相藻傳」, 李用休의 「松穆館集序」, 金灑의 「松穆館燼餘稿」, 張之琬의 「題松穆館稿集後」 등이 있고, 논문에서 그의 생애를 다룬 것으로는 韓泰文, 李彥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國語國文學 第 34輯(1997, 12, 31), pp.41-60. ; 皮正姬, 李彥瑱의 생애와 詩 연구. 성신여대 한문학과 1984., p.12. ; 鄭後洙, 譯官 李彥瑱의 文學觀. 漢城語文學 5號(1986), pp.29-41. 姜東燁, 「虞裳傳」이 투영된 李彥瑱과 그의 世界認識.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1995), pp.55-76. 등이 있다.

4) 劉維翰은 字가 文翼이며 號는 龍門으로 南紀人이다. 그의 저서 『東槎餘談』에서 조선통신사와 만나게 된 경위, 조선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습, 그가 직접 본 조선통신사 여러 인원의 외모와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15인 초상화가 간략한 인물소개와 함께 실려 있다.

5) 劉維翰, 『東槎餘談』序: “雲我儂容少年 無鬚髮 言笑可愛 穎悟發 眉宇間 其所吐納 非它瑣瑣比也 志高文辭 崇尚王李 則謂學士書記 俗人不足取焉”

는 유가, 노가, 불가의 책을 비롯하여 그의 시에 나오는 이백, 두보, 왕유, 한유, 맹교, 가도, 육유, 구양수, 소식, 백거이 등을 섭렵하였다라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왕세정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진력한 것으로 보인다. 劉維翰의 『東槎餘談』에는 이언진이 사행기간동안 일본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실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이에는 당시 사행인들과 필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언진과 필담을 나누는 것도 실려 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이언진은 왕세정은 재주가 매우 높고 배움이 몹시 넓어 하경명이나 이몽양에 견주어도 능히 맞겨루지 못하고 성대히 받들어 인정할 만하다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이 두 사람을 공부하게 된 것은 스승 이용휴의 가르침과 인도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7)</sup>

그의 저술 「海覽篇」에는 작품 도처에 왕세정에서 끌어온 전거들이 감춰져 있으며 그의 저술 「衡衡居室」의 몇 편의 시에도 왕세정을 인용하고 있다.<sup>8)</sup> 특히 「弇園」이라는 제목의 시에서는<sup>9)</sup> “弇園(王世貞의 號)은 기세는 진실로 문장의 으뜸이니 비유하건대 형가<sup>10)</sup>에서 말하는 큰 줄기에 해당한다. 눈 밑에 석공<sup>11)</sup> 무

리들은 나머지 모두 자손봉우리에 해당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즉 왕세정이 으뜸이요 袁宏道 등의 천백 명은 모두 그 아류라고 하고 있다. 「弇園」시는 그가 남긴 필첩 『虞裳剩馥』에도 들어 있다.

궁극적으로 이언진은 왕세정의 문학을 덮어 놓고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방식면에서 왕세정의 박학을 본받고 유불도 넘나드는 사상적 회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안파나 경릉파의 문학세계도 걸음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sup>12)</sup>

이언진은 문학뿐만이 아니라 書畫에도 능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의 시와 다른 사람들의 글에서 보인다. 우선 「衡衡居室」의 제2首에서는 자신의 글은李白에 그림은 남종화가의 거두인 王維에 비견하였다.<sup>13)</sup> 그는 자신의 시를 이백에 비견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다. 李德懋는 虞裳傳에서 그의 시에 대해 “일찍이 이용휴에게 시를 배웠는데 마음으로 본받고 솜씨를 흉내 내어 그의 妙奧함을 모두 배웠고 비루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따로 靈異함을 갖추었으며 고금을 꿰뚫어 보았기에 안목이 달과 같이 밝았다”고 하였다.<sup>14)</sup>

6) 이동순, 李彦瑱 시의 독창성 고찰 -세계관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고전연구』 10집(2004), pp.247-270.

7) 劉維翰, 『東槎餘談』 卷下 筆談: “雲我(李彦瑱)曰 王才甚高 學甚博 而懲何大復李空同 不相能 盛相推詡 世人遂並稱王李 而 雲淳熙曰: ‘王李文苑之南面王也 然文無二王 元美獨王矣.’ 此言不可忽 龍門(劉維翰)曰 公即吳郡身後之鍾期”; “雲我(李彦瑱)曰 錢虞山(錢謙益)曰 天地之大 古今之遠 文心至深 文海至廣 窈窕載一二人爲巨子 乘車入鼠穴者可笑 吾幼習王李家言 擬摸入微中 承吾師(李用休)之教 思別出手眼 就王李 別開一洞天 然其慕尙之意 不但已 此平生悟解者 故敢奉獻”

8) 鄭珉,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자료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32輯(2003), pp.87-123.

9) 李彦瑱, 『松穆館集』 16張 前面: “弇園氣勢儘文宗 譬似形家大幹龍 腹底石公千百輩 與他都做子孫峯”

10) 形家是 堪輿家로 풍수지리에 해당한다. 來龍은 산줄기를 말한다.

11) 石公은 명대의 시인 遠宏道の 호이다. 그의 형 遠宗道, 동생 遠中道와 함께 3대시인으로 이름이 났다.

12) 鄭珉,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자료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32輯(2003), pp.87-123.

13) 李彦瑱, 『松穆館集』 「衡衡居室」의 제2首: “一虞裳一蟹蕩 我友我不友人 詞客供奉(李白)同姓 書師摩詰(王維)後身”

14) 李德懋, 『靑莊館全著』, 卷 34 「清脾錄」 卷3 李虞裳條: “李彦瑱一自名湘藻 字虞裳 譯官也 性慧奧 博極群書 聰記絕世 嘗學詩于李惠實用休 心摹手追 盡得其妙奧 惠實 洞先凡陋別具靈異 橫豎今昔 眼珠如月”

이언진이 글씨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스승 이용휴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이용휴의 숙부 玉洞 李澈가 왕희지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이론화 한 『筆訣』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玉洞은 음양의 원리로 서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서법의 정도는 形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神을 본뜨는 것이라 하였다. 그의 서법은 획에 대한 이해부터 易을 적용한 이상 주의적인 색채대문에 다른 書家의 호응은 드물었지만 海峽 이용휴는 그의 서법이론을 존중하여 좋은 글씨를 쓰려면 작가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15)</sup> 이용휴는 또한 그의 輓詩 8首에서 이언진의 글씨에 대해

“그 사람의 팔뚝에는 신이 붙었고, 그 사람의 붓에는 혀가 달렸다고”<sup>16)</sup> 극찬하였다.

김조순 또한 『楓臯集』에서 그의 글씨에 대해 “그는 글씨를 잘 쓰면서도 빠르는데 일찍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기 전에 30장을 썼으나 글자획이 모두 단정하여 인쇄한 것 같고 잘못된 곳이 없으니 그 精敏함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sup>17)</sup> 그가 남긴 『虞裳剩馥』의 필첩에는 해서와 초서체의 글씨가 남아 있다. 「海覽篇」은 해서로 썼는데 晉體의 고전적 모범을 바탕으로 단정하게 쓴 글씨이다. 사행일기, 시 및 간찰은 모두 초서체인데 글씨가 준수하면서도 수려하다.

押物判事前  
 慶學主簿從  
 六品李彦瑛  
 字虞裳號景  
 輩或雲我或  
 誕音子兼林  
 人庚申生二  
 十五



〈그림 1〉 동사여담에 실린 이언진 초상화

15) 羅鐘晚, 惠賓의 文藝認識과 書畫論. 「東洋古典研究」 第13輯(2000, 6). pp.446-451.  
 16) 李用休, 『惠賓居士詩集』 李虞裳輓 卷2首: “其人膽如瓠 其人眼如月 其人腕有靈 其人筆有舌”  
 17) 金祖淳, 『楓臯集』: “又善書而疾 嘗冬日晏起 盥櫛端坐抄書 未朝食而得卅餘頁 字劃皆端楷如印本 亦無脫漏處 其精敏類此”

### 3. 우상 이언진의 유고와 문집

#### 3.1 『우상잉복』

『虞裳剩馥』은 위창 오세창이 이언진의 남아있는 필첩에 붙인 이름이며 그 뜻은 우상이 남긴 귀한 글을 의미한다. <부록, 그림 2 참조> 이는 이언진이 짓고 필서한 것에 李用休와 南時韞(玉)이 비점을 붙인 「해담편」이 앞에 있다. <부록, 그림 3-1~3 참조> 이어서 영조 39년(1763) 10월 6일부터 영조 40년(1764) 6월 20일까지 통신사 趙曦를 수행하고 한학역관으로 일본에 사행을 갔을 때의 7일간의 일기가 실려 있다. 첫 번째 일기는 '初三日晴'으로 시작되는데 大津에 머무르면서 점심을 먹고 書原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기사는 『海行摠載』 7에 실린 趙曦이 쓴 『海槎日記』 중 「路程記」에 의하면, “근강주의 대진 오우즈까지 30리인데 1월 29일에 와서 점심하였고, 4월 3일에 돌아오는 길에 점심하였다”라고 하였고<sup>18)</sup> 『海槎日記』 5 갑신년 4월 3일조에는 “날이 맑아서 大津에서 점심을 먹고 書原에서 갔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sup>19)</sup> 이는 영조 40년(1764) 4월 3일에 쓴 사행일기임을 알 수 있다. <부록, 그림 4 참조> 이어서 '明日', '十二日晴', '十三日晴', '十四日雨', '十五日晴', '十六日晴'으로 시작되는 6일간의 일기가 있는데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부록, 그림 5 참조>

시 3편이 남아 있는데, 「陸放翁」, 「弇園」이란 제목의 칠언절구와 「武后」라는 제목의 오언절구로 『송목관집』에도 실려 있다. <부록, 그림 6 참조> 나머지는 5통의 편지인데 청성 성대중에게 보낸 서간이다. <부록, 그림 7-1~3 참조> 이언진이 27세에 병이 깊어지고 가세가 어려워 청성 성대중에게 본인의 글은 대부분 불태우고 남아 있지 않으며 자신의 글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이는 편지와 몸의 통증이 심해 편포를 구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 3.2 『송목관집』과 『송목관신여고』

우상의 문집은 두 종류가 있는데, 『松穆館集』과 『松穆館燼餘稿』이다.

『松穆館集』은 철종 11년(1860)에 金奭準이 校輯하여 紅藥樓에서 간행한 상하 2책의 목판본이다.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20.4×14.3cm, 半葉 9行 21字, 上黑魚尾, 25.5×16.0cm이다. 이 책은 『松穆館燼餘稿』와는 편제가 약간 다르게 편집했는데 虞裳의 글을 전부 섭렵하지 못했다. 권수에 李用休의 序와 挽, 李尙迪의 李虞裳先生傳이 들어 있고, 권상에는 『松穆館燼餘稿』에 실린 작품중에 일부가 선집되어 실렸으며,<sup>20)</sup> 권하에는 역시 贊 1편(二楊贊), 銘 1편(硯滴銘), 尺牘 2편(寄弟殷美), 李尙迪의 跋文이 실려 있다.<sup>21)</sup>

『松穆館燼餘稿』는 『松穆館集』과 마찬가지로

18) 趙曦 『海槎日記』 「路程記」: “近江州大津五牛즈 三十里正月二十九日中火 四月初三日中火

19) 趙曦 『海槎日記』 5, 甲申年 4月3日條: “初三日甲申晴 大津中火 宿書原”

20) 칠언율시의 山寺題壁, 칠언절구인 擬古由家四時詞, 墨竹, 燈, 칠언고시인 余八月踰嶺觸目由田園皆詩中境也馬上口占, 칠언율시인 客中秋夕, 오언고시인 祭海神, 칠언고시인 壹岐島, 오언고시인 海覽篇, 칠언고시인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오언율시인 疾臥壹岐島舟中... 12수, 육언절구인 日本途中所見 24수, 칠언절구인 贈選悉齋舍吉野連尋

지로 철종 11년(1860)에 이언진의 손자 李鎭命과 宗人 李慶民이 이언진의 원고중 불타고 남은 것을 모아서 목활자로 간행한 2권 1책이다. 이의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20×14cm, 半葉 9行 20字, 上黑魚尾, 18.5×17.6cm이다.<sup>22)</sup>

권수에는 李用休의 序가 있고, 本傳 3편이 실려 있는데 本傳 一은 朴趾源의 『燕巖集』에서 뽑은 것이며 本傳 二는 金祖淳의 시문집인 『楓臯集』과 李德懋의 『靑莊館全著』 卷34 「淸脾錄」 卷3에서 뽑은 것이다.

본문은 시로서 五言古詩 3題 3首(祭海神, 海覽篇, 贈人), 七言古詩 3題 3首(余八月踰嶺觸目由田園皆詩中境也馬上口占, 壹岐島,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五言律詩 2題 32首(疾臥壹岐島舟中… 12수, 甲申六月二十八日試鷄毛筆書于昌原客舍斜陽明窓蟬聲滿廚 20수), 七言律詩 4題 4首(客中秋夕, 塞下曲, 山寺題壁, 新年), 五言絕句 12題 12首(病餘, 阿母, 暮過山寺, 寓言, 村家, 端坐, 自知, 聞吟, 無題, 漢高帝, 呂后, 武后), 七言絕句 19題 19首(擬古由家四時詞, 寓舍, 醫員金主簿, 陸放翁, 吾身, 孔氏, 弁園, 各作家, 燈, 倚欄, 睡鄉, 失題, 詩畫帖, 墨竹, 贈選悉齋舍吉野連尋遂, 遊仙詞, 宮怨, 題墨竹障子, 窓光), 六言絕句 187수(衒衲居室 157수, 日

本途中所見 24수, 失題 5수, 自題日本詩集 1수)가 실려 있다. 이밖에 贊 2편(畫像自題, 二楊贊), 銘(硯滴銘) 1편, 尺牘 2편(寄弟殷美)이 있다.

권말에는 金瀟과 張之琬의 발문이 실려 있다.

『松穆館燼餘稿』에 들어 있는 작품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燕巖 朴趾源과 楓臯 金祖淳과 靑莊館 李德懋가 지은 우상의 전기가 실려 있다. 이들은 우상 이언진과 교류한 이들이 아님에도 그의 문장을 보고 전기를 지어서 남긴 것이다. 김조순은 그의 시를 '少調格 然瞻敏'이라 하였고,<sup>23)</sup> 이덕무는 그의 詩 중 「海覽篇」과 「祭海神」을 '瑰奇譎特'이라<sup>24)</sup> 하였으며,<sup>25)</sup> 박지원이 「虞裳傳」을 쓰게 된 것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의 뛰어난 문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의도로 작품을 세부분으로 구성하여 첫째,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 이유와 일본의 사정을 기술하였고, 둘째, 이언진이 남긴 기행시중 「海覽篇」, 「壹岐島」,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등이며 「海覽篇」 이외에는 제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셋째, 이언진이 죽고 난 이후의 후일담을 소개하면서 이용휴(1708-1782)의 輓詞를 통하여 이언진의 삶중의 특징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sup>26)</sup>

遂, 오언율시인 甲申六月二十八日試鷄毛筆書于昌原客舍斜陽明窓蟬聲滿廚 20수, 오언절구인 無題, 阿母, 村家, 육언절구인 衒衲居室 157수중 20수, 칠언율시인 自咏, 新年, 칠언절구인 窓光이 들어 있다. 그중에 칠언율시인 自咏은 『松穆館燼餘稿』에 들어 있지 않다.

21) 『松穆館集』의 국립소장본인 위창고3648-62-38은 『松穆館燼餘稿』와 합본으로 되어 있고, 서울대규장각소장본은 일사 고 819.54 y54s이다.  
 22) 『松穆館燼餘稿』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일산고 3648-62-105, 고3648-62-67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고 3428-827이 있다. 국립소장본인 위창고 3648-62-38은 『松穆館燼餘稿』와 『松穆館集』이 합본으로 되어 있다.  
 23) 金祖淳, 『楓臯集』 卷15 「李彥瑱傳」 “大抵詩少調格 然瞻敏亦可見”  
 24) 李德懋, 『耳目口心書』 卷3 “其海覽篇祭海神 皆瑰奇譎特”  
 25) 李相鎭, 李彥瑱의 「衒衲居室」考, 『韓國漢文學研究』 第12輯(1989), p.217.  
 26) 姜東燁, 「虞裳傳」에 투영된 李彥瑱과 그의 世界認識, 『建國語文學』 第19·20합집(1995), p.58.

둘째, 『송목관집』 전체의 작품 중에 사행과 관련된 작품들은 시가 11題 42首이고 척독이 2篇 이 남아있는데 그중 「海覽篇」, 「壹岐島」,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등은 장편으로 다른 작품보다 다양한 전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虞裳의 對日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어 그의 문학관과의 관계를 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sup>27)</sup>

셋째, 이언진의 시 가운데 「衙衙居室」은 157수의 장편인데 우상 이언진이 閭巷의 거리에서 백성들 속에 섞이어서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詩作한 것이다. 다른 시들이 불타고 일부가 남은 것에 비하면 이는 일련의 연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는 六言이라는 독특한 시의 형식을 빌려 여학인들의 움직임과 시정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157수 중 마지막 시에서는<sup>28)</sup> 스스로 자기시를 자평하여 어록체이고 전기 같고 사곡같다고 하였다.<sup>29)</sup>

#### 4. 「해람편」

이언진의 「海覽篇」은 영조 39년(1763) 10월 6일부터 영조 40년(1764) 6월 20일까지 통신사 趙曦를 수행하고 한학역관으로 일본에 사행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것이다.

이 글은 五言詩로 구성하였으며 入聲에 속하는 48韻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기행시이다.

「해람편」의 저술과 필사가 언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인데 비점본 「해람편」의 권말에는 “癸未長至後七日書于勝本海舟中”이라는 필사가 남아 있다. 이 기록만을 참조하면 癸未年은 영조 39년이고 長至後七日은 夏至 후 7일이 되며 勝本海는 곧 壹岐島이다. 이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趙曦의 『海槎日記』 「路程記」를 보면 “사행을 떠날 때 일기도에 머물렀던 것은 영조 39년 11월 13일에 도착해서 객관에서 13일 동안 머물렀고, 돌아올 때는 이듬해인 영조 40년 5월 28일에 도착해서 배에서 6일 동안, 객관에서 8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海槎日記』 영조 40년 5월조를 보면 壹岐島에 도착해서 선상에 머물렀던 것은 5월 28, 29일, 6월 1일, 2일, 7일, 8일의 6일이다.<sup>30)</sup> 이 세 기록을 참조하면, 필사기의 재미년은 그 이듬해인 갑신년으로 정정해야 하고 長至 後 七日은 하지가 며칠인지 정확히 계산해야겠지만 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내용을 구상하여 壹岐島 선중에 머물렀던 영조 40년(1764) 5월 28일, 29일과 6월 1일, 2일, 7일, 8일 사이에 필사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海覽篇」은 五言古詩의 기행시인데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7) 韓泰文, 李彥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國語國文學』 第34輯(1997. 12. 31), pp.53-54.

28) 李彥瑱, 『松穆館燼餘稿』 「衙衙居室」 157首 “腐爛譬如語錄 煩瑣譬如註脚 其警愈下愈奇 文如傳奇詞曲”

29) 李相鎭, 李彥瑱의 「衙衙居室」考, 『韓國漢文學研究』 第12輯(1989), p.323.

30) 李彥瑱, 『虞裳剩馥』 「海覽篇」의 卷末: “癸未長至後七日書于勝本海舟中”의 필사기, 趙曦, 『海槎日記』 「路程記」: “一(壹)岐島 益其老時麻 風本浦 加自馬刀 四百八十里 十一月十三日來泊留館十八日 五月二十八日還泊留船上六日留館七日”의 기록, 趙曦, 『海槎日記』 甲申年 五月 二十八日, 二十九日, 六月 一日, 二日, 七日, 八日條의 기록. 이 세 기록을 종합하면 사행기간이 영조 39년(1763) 10월 6일부터 영조 40년(1764) 6월 20일까지인데 사행을 떠났다가 영조 40년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중에 壹岐島에 정박하면서 船中에 머물렀던 영조 40년(1764) 5월 28, 29일과 6월 1일, 2일, 7일, 8일 사이에 필사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단계에 해당하는 서두는 일본의 지리적 인 위치와 그 풍물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海覽篇」에 의하면 “지구안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각각 그 특징들이 있다. 일본은 파도가 넘실대는 곳이며 나무는 榑桑이며 위치는 해 돌이 하는 것을 맞이하는 쪽이다. 토산품은 橙子와 귤이다. 고기는 章擧이고 나무는 소철이다. 芳甸山이 있으며 句陳星의 별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남북은 봄가을이 다르고 동서는 밤낮이 구분된다. 단사, 황금, 주석은 가끔 산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2단계는 大阪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문명개화를 통해 운집한 세계의 物産들에 비유하여 서술하였다. 「海覽篇」의 앞부분에는 은을 비롯한 다양한 보석들과 향, 상아, 서각 등이 페르시아나 중국 浙江시장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수레를 밀고 따라와서 모여드니 거간군은 천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大阪은 바다에 둘러 쌓여있고 육지 가운데 내해가 있어

다양한 어류와 조개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다양하게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

이언진이 사행으로 갔던 1764년경의 일본은 이미 長崎를 중심으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었고, 중국 절강과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德川幕府의 제한된 무역정책은 大阪은 물론이고 일본전체의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이러한 예가 대판의 상점거리에서 목도될 수 있었다.<sup>31)</sup>

제3단계는 일본인의 편향적인 민족성과 종교를 말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일본 서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晋의 羅含<sup>32)</sup>이 쓴 식물관련 저술, 北魏의 酈道元(466-527)<sup>33)</sup>이 쓴 河流水道에 관한 『水經注』, 이태리의 思及(Giulio Aleni 1582-1649)<sup>34)</sup>의 저술인 『圖說』, 陶弘景(452-536)<sup>35)</sup>의 『古今刀劍錄』, 利瑪竇(Matteo Ricci 1552-1610)<sup>36)</sup>의 『萬國輿圖』 등은 모두 일본을 빠뜨리고 있

31) 姜東樺, 「虞裳傳」에 투영된 李彥瑱과 그의 世界認識,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1995), p.68.  
 32) 羅含은 晋의 來陽人으로서 荊州城 서쪽 小洲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식물을 심고 연구한 인물이다.  
 33) 酈道元(466-527)은 북위사람이며 자가 善長이다. 중국 각지의 하천 수계를 기록한 간략한 지리서인 漢의 桑欽이 저술한 『水經』의 주석서인 『水經注』 40권을 저술하였다.  
 34) 줄리오 알레니 Giulio Aleni(1582-1649)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한문이름이 愛儒略이고 字가 思及이다. 1582년 브레시아에서 태어났다. 1597년에 성 안토니오대학에 입학하여 2년간 문학 과정을 수학했다. 1609년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로 임명되어 3월 23일 리스본을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여 1610년 말경에 마카오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30년 동안 전교 활동을 하면서 한문을 배워 저술 활동에 종사했다. 1623년 6월에 중세 유럽의 교육과 학문, 교육 이후의 취업 등에 대해 개론적으로 저술한 『서학법』을 출간하였다. 두 달 뒤에 세계인문지리서인 『職方外紀』를 증역하였다. 뒤이어 『幾何要法』, 『西方問答』 등 수십 권의 책을 저술했다. 1649년 8월에 사망하여 福州 十字山에 안장되었다.  
 35) 陶弘景(452~536)의 시호는 貞白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本草家로 구곡산에 들어가 華陽陶隱이라 칭하고 수도 생활을 했다. 천문, 역법, 수학, 지리, 의학, 연단습을 다각도로 연구하였고 刀劍에 관심을 가져 『古今刀劍錄』을 저술하였다.  
 36) 利瑪竇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중국식 이름이다. 이탈리아의 예수회 소속 修士이다. 명나라 말기인 1583년에 중국 廣東에 상륙한 이래 1595년 南京, 1601년에 北京에 들어가 광둥에서 간행한 『萬國輿圖』라는 세계지도 등을 명의 神宗에게 바쳐서 신임을 얻었다. 북경 宣武門 안에 땅을 얻어 성당을 세우고 傳教에 힘썼다. 그는 성양의 학술과 종교에 관한 도서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는데 종교교리서는 『天主實意』, 『交友論』, 『辨學遺牘』, 『幾何原本』, 『萬國輿圖』, 『乾坤體義』 등 20여종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어 다시 저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단계는 이 시를 읊는 뜻은 변화하는 일본을 의식하여 자신의 말이 진실이니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로 맺고 있다.

이언진의 「海覽篇」은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암 박지원이 「虞裳傳」에 포함시켜 그의 대표작으로 여겼고, 이번에 발견된 『虞裳剩馥』에는 그의 스승인 이용휴와 일본사행에 제술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南玉이 비점을 찍은 원본이 들어 있으니 이 글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도를 알게 해준다.

## 5. 비점본 「해람편」의 비점자 이용휴와 남옥

李用休<sup>37)</sup>는 肅宗 34년(1706)~正祖 6년(1782) 사이에 활동한 조선후기의 문인이다. 본관은 여주이고 字는 景命이며 호는 惠寔 또는 坦만이다. 李沈(1671-1713)의<sup>38)</sup> 둘째 아들이며, 실학의 대가 李家煥의 아버지이다. 그는 중

북 예산에서 태어나 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16세를 전후하여 廣州 瞻星里에 살고 있던 숙부 星湖 李灑(1681-1763)의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인 학문수련에 힘썼다. 이용휴는 18세에 淸州 柳氏 憲章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家煥과 딸 다섯<sup>39)</sup>을 두었다.

惠寔은 23세에 생원이 되었고, 4년 뒤에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숙부인 이익의 실학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다시 과거를 보지 않고 문학에 전념했다. 34세쯤에는 서울의 皇華坊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 서울과 安山을 오가며 문예활동에 몰두하여 南人詞壇을 형성하였다.<sup>40)</sup> 이러한 바탕위에 이용휴의 주변에는 늘 10여 명의 여향문인들이 따라 다녔는데<sup>41)</sup> 그중에 이용휴로부터 가장 아낌을 받았던 사람이 李彦瑱이었다. 이언진이 죽고 난후에 지은 輓詩 10首를 지어 제자의 아까운 재능과 불우하기만 했던 그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42)</sup>

이용휴는 40대부터 회갑을 맞기까지 약 20년간은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sup>43)</sup> 63세에는 서울 황화

37) 李用休(1706-1782)에 대해서는 朴浚鎬, 惠寔 李用休의 傳에 대하여, 漢文學報 第1輯, pp.509-53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p.111 이용휴를 참고하였음.

38) 李沈(1671-1713)은 梅山 李夏鎭(1628-1682)의 다섯 형제 중의 넷째 아들이다. 자는 汝默이며 호는 鶴亭이다. 이침은 星湖 李灑(1681-1763)의 바로 위의 형이자 서예 이론을 제시한 『筆訣』의 저자 玉洞 李澈(1662-1723)의 동생이다. 그는 첫 부인 草溪鄭氏와의 사이에 廣休(1693-1761)와 딸을 두었고, 둘째부인 漢陽趙氏와의 사이에 用休와 秉休(1710-1777)형제를 두었다. 李廣休는 백부인 李滄(1647-1673)의 뒤를 잇고, 李秉休는 중부인 李潛(1660-1706)의 후사를 이었으며 딸은 洪日休에게 출가시켰다.

39) 李用休는 거의 남인들인 許彙, 李光溍, 申泝, 李東遇, 姜世觀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이광직의 손자가 李承薰(1756-1801)이고, 이동우의 손자가 바로 洛下生 李學達(1770-1835)이다.

40) 南人詞壇에는 崔成大(1691-1761), 任琯(1694-1750)은 선배격으로 참여했으며, 주로 남인계의 문인들과 李匡 呂(1720-1783)와 같은 소북계의 문인들도 일부 참여하였다. 이 모임의 중심인물들은 惠寔을 비롯하여 安山十五學士로 불리던 인물들이다.

41) 李用休의 주변의 여향 인물로는 李彦瑱을 비롯하여 金瀟, 李聖中, 李仁大, 鄭之鍊, 崔北, 李亶佃 등이 있다.

42) 朴浚鎬, 輓詩에 대한 一考察: 혜환 李用休의 작품을 위주로, 東方漢文學 第19輯, pp.492-495.

43) 혜환 이용휴는 40세에 어머니 漢陽趙氏를 잃었고, 54세에 15세 연상인 형 李廣休를, 56세에는 스승이자 숙부인

방에서 외손자 李學澆가 태어나는데 10년간 이학규에게 글을 가르쳤다. 64세에는 아들 이가환이 사마양시에 합격하고 오년 뒤에는 문과에 장원하였는데 74세인 1781년에 아들의 출세로 인해 蔭補로 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惠寔의 학문성향은 숙부이자 스승인 星湖 李瀼에 바탕을 두었으며 특히 문학적인 체계는 성호에 연유하였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약간 다른 점은 星湖가 성리학에 학문체계의 기반을 두고 양명학을 부정적으로 보고 배척했던 반면에 惠寔은 명말 청초의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당대의 문장가로서 초야에 머문 선비였으나 남인계의 문권을 30여 년 간 주도했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추종을 받았다. 『海西丐者』라는 한문소설을 비롯하여 저서로는 『탄만집』·『惠寔詩鈔』·『惠寔雜著』가 남아 있다.

南玉<sup>44)</sup>은 景宗 2년(1722)~英祖 46년(1770) 사이의 인물로 字가 時韞이고 호는 秋月이다. 남옥은 景宗 2년(1722) 5월에 진사 道赫과 안동김씨 사이에 全州 飛來川에서 출생하였다. 18세에 홍주에서 柳綵의 딸과 결혼하였고, 유시와 사별한 후 黃壽鼎의 딸과 재혼하여 南鑣와 南錯 두 아들을 두었다. 남옥은 두 번 유배를 당하는데 24세 때인 영조 22년(1746) 3월에 원경하의 진언에 따라 賣文의 죄목으로 안악에 정배되었다가 다음해 여름에 사면되었고, 영조 38년(1762) 6월에 趙載浩의 옥사에 연루되어 두 번째로 유배되었으나 그해 8월에 洪鳳

漢의 주청으로 찬배에서 풀려났다. 영조 39년(1763) 癸未使行時 제술관으로 파견되어 정사였던 趙曦, 서기였던 成大中, 元重舉, 金仁謙, 역관이었던 이언진과 함께 일본에 文名을 드날렸다. 이들 중에서 일본인인 奧田元繼는 “갑신사행 480여 인 가운데 붓놀림이 물 흐르는 듯하면서도 말이 되고 간간이 기묘한 데가 있어서 평할만한 사람은 오직 秋月 한사람뿐이다.”<sup>45)</sup>라고 하였다. 그가 갑신사행에서 남긴 시문은 『日觀記』, 『日觀詩草』, 『日觀唱酬』 등이 남아 있는데 조엄이 쓴 『동사여록』보다 한일간의 문사들의 교류와 시문창화, 필담 등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남옥의 문학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은 김창흡의 시세계를 추종했고 서정성이 강한 시를 지었으며 문장은 唐宋古文에 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陸游의 시를 추종한 것으로 보아 송의 시풍으로 여겨진다. 『日觀詩草』에 실려 있는 시 1,100수 중에 김창흡의 시에 차운한 것이 13편 154수이고, 육유의 시에 차운한 것이 28편 117수이다.<sup>46)</sup>

英祖 46년(1770)에 崔益南의 옥사 때 李鳳煥과 친하다 하여 투옥된 지 5일 만에 物故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에 드날렸던 文名에 비해 그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행시문에 대해서도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까지 남아 있던 저작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많다.<sup>47)</sup>

이언진은 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던 영조 40

星湖 李瀼을, 59세에는 부인 晉州柳氏와 제자 李彥瑱을 잃었다.  
 44) 金聲振, 南玉의 生涯와 日本에서의 筆談唱和. 『韓國漢文學研究』 第19輯, pp.273-300을 참고하였음.  
 45) 奧田元繼, 『兩好餘話』 跋: “今茲甲申聘使同行四百八十餘人 其中筆翰如流 語言立成 間有奇妙可評者 唯秋月一學士而已”  
 46) 金聲振, 南玉의 生涯와 日本에서의 筆談唱和. 『韓國漢文學研究』 第19輯, pp.273-300.

년(1764) 5월 28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壹岐島 船中에서 『해람편』을 저술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스승인 이용휴와 제술관이었던 남옥에게 언제 보이고 비점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스승인 이용휴에게 먼저 보인 다음 靑批를 받고, 다시 남옥에게 보여 朱批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언진이 사행에서 돌아온 후 영조 42년(1766)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이전에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6. 비점본 「해람편」과 『송목관집』·『송목관신여고』의 「해람편」 비교

이언진이 계미사행기간에 저술하여 필사한 비점본 「海覽篇」과 철종 11년(1860)에 간행된 『松穆館集』 및 『松穆館燼餘稿』에 실린 「海覽篇」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비점본 해람편이 원본인데 비해 문집에 실린 것은 90년 후에 이루어진 간행본이다. 이들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구성의 4단계로 나누고 <표 1>에서 <표 4>로 작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단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일본의 지리적인 위치와 그 풍물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坤輿內萬國’으로부터 ‘皆徃徃山出’까지이다. 이들 내용을 <표 1>로 체계화하고, 비교의 편의를 위해 批點本 「海覽篇」을(A), 靑批, 靑貫珠(李用休)를(B), 朱批, 朱貫珠(南

玉)를(C), 『松穆館集』 「海覽篇」(金奭準 校輯)을(D), 『松穆館燼餘稿』 「海覽篇」을(E)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표 1>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韻字가 전체 총 48자 중 列, 髮, 毳, 沫, 物, 瀟, 日, 橘, 鐵, 秩, 別, 雪, 質, 出의 14자이다. 批點은 시나 글을 끊을 때에 잘된 곳에 찍는 등근 점이고 貫珠는 시문을 끊을 때 아주 잘된 시구 옆에 찍던 등근 동그라미이다. 이용휴가 찍은 청비점이 남옥이 찍은 주비점에 비하여 후하게 찍었다. 청비점은 2개, 3개, 4개를 찍었고, 靑貫珠를 친 것도 두 군데나 된다. 청비점중 4개를 찍은 구절은 1-22 ‘東西晝夜別’과 1-24 ‘嵌空龍漢雪’이다.

남옥은 주비점을 많이 찍지 않았는데, 그중 4개를 찍은 곳은 1-18 ‘卉之怪蘇鐵’이다. 1-5 ‘齊魯之逢掖’의 옆에는 夷盛夏弱의 주석을 달아서 이민족이 번성하고 中夏가 약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8 ‘或堯離侏沫’에서는沫을 侏로 교정을 하고 있다. 이는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떠드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니沫을 侏로 교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A)본의 ‘或堯離侏沫’에서(D)본과(E)본이 모두沫을 侏로 정정하였다.(A)본의沫은(C)에서 남옥이 侏로 교정을 보았고,

47) 南中, 祔通訓大夫行遂安郡守公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割肝錄』 1책, 『溟嶽詩史』 1책, 『詩集』 2책, 『文章』 2책, 『日觀詩草』 2책, 『日觀唱酬』 3책, 『日觀記』 4책 등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전하는 것으로는 『日觀詩草』, 『日觀唱酬』, 『日觀記』 등 3종뿐인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그중 『日觀唱酬』는 상권이 결절이고, 『日觀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중 제4책이 결본이다.

〈표 1〉 批點本 「海覽篇」의 1단계 구성부분의 비교

	批點本 「海覽篇」(A)	靑批, 靑貫珠 (李用休)(B)	朱批, 朱貫珠 (南玉)(C)	『松穆館集』 「海覽篇」 (金奭準 校輯)(D)	『松穆館榼餘稿』 「海覽篇」(E)
1-1	坤輿內萬國	靑批 3개		坤輿內萬國	坤輿內萬國
1-2	碁置而星列	靑批 3개		碁置而星列	碁置而星列
1-3	于粵(=越)之魑結	靑批 3개		于粵(=越)之魑結	于粵(=越)之魑結
1-4	竺乾之祝髮	靑批 3개		竺乾之祝髮	竺乾之祝髮
1-5	齊魯之逢掖	靑批 3개	註: 夷盛夏弱	齊魯之逢掖	齊魯之逢掖
1-6	胡貊之氈(=氈)毼	靑批 3개		胡貊之氈(=氈)毼	胡貊之氈(=氈)毼
1-7	或文明魚雅	靑批 3개		或文明魚雅	或文明魚雅
1-8	或兜離侏侏	靑批 3개	沫을 侏로 수정함	或兜離侏侏	或兜離侏侏
1-9	群分而類聚	靑批 3개		群分而類聚	群分而類聚
1-10	遍土皆是物	靑批 2개		遍土皆是物	徧土皆是物
1-11	日本之爲邦		朱批 3개	日本之爲邦	日本之爲邦
1-12	波壑所蕩滂		朱批 3개	波壑所蕩滂	波壑所蕩滂
1-13	其藪則搏木	靑批 3개		其藪則搏木	其藪則搏木
1-14	其次則賓日	靑批 2개		其次則賓日	其次則賓日
1-15	女紅(=工)則文繡	靑批 2개		女紅(=工)則文繡	女紅(=工)則文繡
1-16	土宜則橙橘	靑批 3개		土宜則橙橘	土宜則橙橘
1-17	魚之怪章舉	靑批 2개	朱批 3개	魚之怪章舉	魚之怪章舉
1-18	卉之怪蘇鐵	靑批 2개	朱批 4개	卉之怪蘇鐵	卉之怪蘇鐵
1-19	其鑛山芳甸	靑批 3개		其鑛山芳甸	其鑛山芳甸
1-20	句陳配厥秩	靑批 2개		句陳配厥秩	句陳配厥秩
1-21	南北春穉異	靑批 2개		南北春秋異	南北春秋異
1-22	東西晝夜別	靑批 4개		東西晝夜別	東西晝夜別
1-23	中央類覆敦(𡇗)	靑批 3개		中央類覆敦(𡇗)	中央類覆敦(𡇗)
1-24	嵌空龍漢雪	靑批 4개		嵌空龍漢雪	嵌空龍漢雪
1-25	蔽牛之鉅材	靑批 2개		蔽牛之鉅材	蔽牛之鉅材
1-26	抵鵠之美質	靑批 2개		抵鵠之美質	抵鵠之美質
1-27	與丹砂金錫	靑貫珠 2개	朱批 3개	與丹砂金錫	與丹砂金錫
1-28	皆徃徃山出	靑貫珠 2개	朱批 3개	皆山遑遑山出	皆徃徃山出

(D) 본과(E) 본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다. 休이 맞는 글자이다. 48)

둘째, 1-10(A) 본의 ‘遍土皆是物’에서(E) 본이 遍을 徧으로 바꾸었는데 遍과 徧은 같은 뜻의 글자이다.

셋째, 1-21(A) 본의 ‘南北春穉異’에서(D) 본과(E) 본이 모두 穉를 秋로 바꾸었는데, 穉

는 秋의 古字이다.

넷째, 1-28(A) 본의 ‘皆徃徃山出’에서(D) 본이 徃徃을 遑遑으로 바꾸었는데, 徃은 往의 속자이고, 遑은 往의 古字이다

제2단계는 大阪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문명개화를 통해 운집한 세계의 物産들에 비유

48) 諸橋綴次 著, 大漢和辭典 권1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3年(1968). p.685 休條: 『正字通』에 의하면 ‘休 韻譜本義 作休 附入聲曷韻 健肥貌 又西夷樂名’

하여 서술하였는데, ‘大坂大都會’로부터 ‘秘  
怪恠恍惚’까지이다. 이들 내용을 <표 2>로 체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韻字는 전체

<표 2> 批點本 「海覽篇」의 2단계 구성부분의 비교

	批點本 「海覽篇」(A)	靑批, 靑貫珠 (李用休)(B)	朱批, 朱貫珠 (南玉)(C)	『松穆館集』 「海覽篇」 (金奭準 校輯)(D)	『松穆館燼餘稿』 「海覽篇」(E)
2-1	大坂大都會	靑貫珠 2개	朱批 3개	大坂大都會	大坂大都會
2-2	環寶海藏竭	靑貫珠 2개	朱批 2개	環寶海藏竭	環寶海藏竭
2-3	光者是朱提	靑批 1개		光者是朱提	光者是朱提
2-4	圓者是靑靱	靑批 3개		圓者是靑靱	圓者是靑靱
2-5	赤者與綠者	靑批 3개	朱批 3개	赤者與綠者	赤者與綠者
2-6	火齊映瑟瑟	靑批 2개	朱批 2개	火齊映瑟瑟	火齊映瑟瑟
2-7	奇香燕龍涎	靑批 2개, 靑貫珠 1개		奇香燕龍涎	奇香燕龍涎
2-8	寶石堆鴉骨	靑批 3개, 靑貫珠 3개		寶石堆鴉骨	寶石堆鴉骨
2-9	牙象口中蛻		朱批 3개, 蛻을 脫 로 수정함	牙象口中蛻	牙象口中脫
2-10	角犀頭上截		朱批 3개	角犀頭上截	角犀頭上截
2-11	波斯胡目眩	靑批 2개, 靑貫珠 2개		波斯胡目眩	波斯胡目眩
2-12	浙江市色奪	靑批 4개, 靑貫珠 2개		浙江市色奪	浙江市色奪
2-13	却車而攬至	靑批 2개		却車而攬至	却車而攬至
2-14	駟儉千戶埽	靑批 2개		駟儉千戶埽	駟儉千戶埽
2-15	寔海地中海	靑批 2개		寔海地中海	寔海地中海
2-16	中涵萬象活	靑批 2개		中涵萬象活	中涵萬象活
2-17	纒腹颿幔張	靑批 3개, 靑貫珠 2개 腹을 背로 수정		纒腹颿幔張	纒腹颿幔張
2-18	鱗尾旌旗綴	靑批 3개, 靑貫珠 3개		鱗尾旌旗綴	鱗尾旌旗綴
2-19	堆壘螭粘房	靑批 2개	朱批 3개	堆壘螭粘房	堆壘螭粘房
2-20	鼯鼠龜次窟	靑批 3개	朱批 3개	鼯鼠龜次窟	鼯鼠龜次窟
2-21	忽變珊瑚海	靑批 3개, 靑貫珠 1개	朱批 2개	忽變珊瑚海	忽變珊瑚海
2-22	煜曜陰火烈	靑批 2개, 靑貫珠 2개	朱批 3개	煜曜陰火烈	煜曜陰火烈
2-23	忽變紺碧海	靑批 3개, 靑貫珠 1개	朱批 3개	忽變紺碧海	忽變紺碧海
2-24	雲霞衆色設	靑批 3개, 靑貫珠 2개	朱批 3개	雲霞衆色設	雲霞衆色設
2-25	忽變水銀海	靑批 3개, 靑貫珠 2개	朱批 3개	忽變水銀海	忽變水銀海
2-26	星宿萬顆撒	靑批 3개, 靑貫珠 2개	朱批 2개	星宿萬顆撒	星宿萬顆撒
2-27	忽變大染局	靑批 3개, 靑貫珠 3개	朱批 2개	忽變大染局	忽變大染局
2-28	綾羅爛千匹	靑批 3개, 靑貫珠 2개	朱批 3개	綾羅爛千匹	綾羅爛千匹
2-29	忽變大鎔鑄	靑批 3개, 靑貫珠 2개	朱批 2개	忽變大鎔鑄	忽變大鎔鑄
2-30	五金光迸發	靑批 2개, 靑貫珠 2개	朱批 3개	五金光迸發	五金光迸發
2-31	龍子擘(=擘)天飛	靑批 2개		龍子擘(=擘)天飛	龍子擘(=擘)天飛
2-32	千電萬霆憂	靑批 3개, 靑貫珠 3개		千電萬霆憂	雷霆極閃憂
2-33	東雲閃鱗爪	靑批 3개	朱貫珠 3개	東雲閃鱗爪	東雲閃鱗爪
2-34	西雲露肢節	靑批 2개	朱批 3개	西雲露肢節	西雲露肢節
2-35	髮鱗馬甲柱	靑批 3개		髮鱗馬甲柱	髮鱗馬甲柱
2-36	秘怪恠恍惚	靑批 2개		秘怪恠恍惚	秘怪恠恍惚

총 48자중 渴, 鞞, 瑟, 骨, 截, 奪, 埒, 活, 綴, 窟, 烈, 設, 撒, 匹, 發, 憂, 節, 惚의 18자이다. 대坂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개방적인 무역현장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며 청비점 및 청관주와 주비점이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은데, 그중에서도 2-17 ‘鬣腹飄幔張’에서 2-34 ‘西雲露肢節’까지의 9韻에는 청비점 및 청관주와 주비점이 동시에 집중되어 있어 문장과 표현이 매우 우수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언진이 대판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영조 39년(1763) 10월 6일부터 영조 40년(1764) 6월 20일까지 계미사행의 일정에서 대판에 머무른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사행은 영조 40년 1월 20일에 대판성에 도착해서 5일을 머물렀고 돌아오는 길에는 4월 5일에 닿았는데 변괴로 말미암아 1개월을 머무르게 되었다.<sup>49)</sup> 이 기간 동안에 이언진은 대판성을 자세히 돌아볼 수 있었고, 그곳의 물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비점이 집중된 부분은 대판이 바다에 둘러 쌓여 있고 육지 가운데 내해가 있어 온갖 어족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수시로 다양하게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수채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2(A)본의 ‘瓊寶海藏渴’에서(D)본은 渴을 竭로, (E)본은 瓊를 環으로 渴을 竭로 정정하였다. 우선 瓊는 붉은 옥, 둥글고 보기 좋은 옥을 지칭하는 명사와 크고 훌륭하다는 형

용사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A)본의 瓊寶는 至寶의 뜻이니 瓊가 맞는 글자이다.(D)본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E)본은 瓊를 環으로 정정한 것은 잘못 교감한 것이다. 또한(A)본의 渴을(D)본과(E)본이 모두 竭로 바꾸었는데, 『釋文』에서 渴은 竭로도 쓰며 潤(물마를 확)의 뜻이니 같은 뜻의 글자이다.

둘째, 2-6(A)본의 ‘火齊映瑟瑟’에서(E)본은 映을 曠으로 정정하였는데, 曠은 映의 속자이다.

셋째, 2-9(A)본의 ‘牙象口中蛻’에서(D)본은 蛻로 쓰고, (E)본은 脫로 정정하였다.(C)에서 남옥이 주비점을 찍으면서 蛻를 脫로 정정하였다. ‘牙象口中蛻’는 ‘상아는 코끼리 입에서 뽑았다’는 뜻이니 남옥이 蛻를 脫로 정정한 것이 시문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2-10(A)본의 ‘鬩犀頭上截’에서(D)본과(E)본이 鬩를 角으로 정정하였다. 鬩는 角의 본자이다.

다섯째, 2-13(A)본의 ‘部車而攬至’에서(D)본과(E)본이 모두 攬을 攬으로, 部을 却으로 정정하였다. 攬은 拾 또는 取의 뜻이며 攬 또는 拮과 같은 글자이다. 따라서(D)본과(E)본의 攬은 제대로 교감된 것으로 여겨진다. 却은 却의 本字인 卻에 가깝게 쓴 글자이지만(D)본과(E)본의 却이 제대로 교감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2-14(A)본의 ‘駟驢千戶埒’에서(D)본과(E)본이 모두 驢를 儂로 정정했는데, 이는 제대로 정정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說文』에서 ‘駟 一曰 駟會’라 하였고, 駟會는 仲買人으로 伯樂, 馬喰과 같으며 駟會는 또한 駟儂과 같다

49) 趙職, 『海槎日記』 「路程記」: “大坂城 五沙介 三十里 正月二十日來泊留館五日 四月初五日還到因變怪留 一朔”

고 하였으니<sup>50)</sup> (A) 본의 글자가 오자인 듯하다.

일곱째, 2-17(A) 본의 '鸞腹飄幔張'에서 이 용휴는 腹을 背로 교정하였고, (D) 본과 (E) 본이 모두 飄을 帆으로 정정하였다. (A) 본에 이 용휴가 교정한 것으로 정정하여 '鸞背飄幔張' 뜻을 해석하면 '후계의 등짝위에 돛이 펼쳐진 듯하다' 라는 뜻이다. 후계는 원래 참게이며 압늬이 솟음을 엮고 다니는 특이한 생활 방식을 뜻한 단 것에 비유하고 있어 (A) 본에 이 용휴가 교정한 '鸞背飄幔張'으로 정정하면 내용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덟째, 2-19(A) 본의 '堆壘螭粘房'에서 (D) 본은 壘을 礪로, (E) 본은 壘을 磊로 정정하였다. (A) 본은 굴조개의 집이 쌓인 것을 성곽에, (D) 본은 산모양에, (E) 본은 돌무더기로 본 것인데, 저자가 처음 기술한 (A) 본의 壘(성채 루)가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홉째, 2-20(A) 본의 '屬鼯龜次窟'에서 (D) 본은 屬鼯(회비)를 鼯屬(비회)로 정정하였다. 단어를 어떻게 쓰든 이 용어는 명사일 때는 큰 거북의 뜻이고, 형용사일 때는 힘을 대단히 쓰는 모양이다. 여기서는 형용사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열째, 2-32(A) 본의 '千電萬霆憂'에서 (E) 본은 '雷霆極閃憂'로 정정하였다. (E) 본은 (A) 본의 문장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라 정정의 의미가 없다.

제3단계는 일본인의 편향적인 민족성과 종교를 말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일본 서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저술에서 모두 일본을 빠뜨리고 있어 다시 저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其民裸而冠'로부터 '線織而刀割' 까지이다. 이들 내용은 <표 3>으로 체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韻字는 전체 총 48자중 羯, 黠, 突, 括, 佛, 舌, 鼈, 悉, 帙, 蟻, 說, 筆, 乙, 割의 14자이다. 이 용휴의 청비점과 청관주 및 남옥의 주비점이 동시에 강조된 것은 일본의 민족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3-3 '遇事則糜沸'부터 3-6 '小拂則豕突'까지와 마테오리치의 『萬國輿圖』를 언급하는 3-25 '地毯之異同'부터 3-28 '線織而刀割'까지이다.

일본의 민족성이 강조된 부분을 보면, '무슨 일 생기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면 쥐같이 교활하네. 진실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물여우<sup>51)</sup> 처럼 상대방을 해치고 조금만 거슬리면 돼지처럼 저돌적이네' 라고 하였다. 일본의 야만적이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말하는 가운데 그들의 진실성도 담겨있는 것이다. 마테오리치의 『萬國輿圖』를 강조한 부분은 '지구의 같고 다름과 해도의 갑을은 西泰의 利瑪竇가 실로 짜고 칼날로 자른 듯이 정밀하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일본이 지도에서 빠진 것만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마테오리치의 『萬國輿圖』는 중국 중심주의 사고관에서 세계중심주의 사고관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50) 諸橋轍次 著, 大漢和辭典 권12.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3年(1968). p.511 駟  
51) 물여우는 날도래의 유충이다. 물속에 살며 주둥이에 한 개의 긴 뿔이 달려 이것으로 사람의 그림자를 쏘면 사람에게 종기가 생긴다고 한다.

〈표 3〉 批點本 「海覽篇」의 3단계 구성부분의 비교

	批點本 「海覽篇」(A)	靑批, 靑貫珠 (李用休)(B)	朱批, 朱貫珠 (南玉)(C)	『松穆館集』 「海覽篇」 (金奭準校輯)(D)	『松穆館燼餘稿』 「海覽篇」(E)
3-1	其民裸而冠	靑批 2개		其民裸而冠	其民裸而冠
3-2	外螿中則羯	靑批 2개		外螿中則蝸	外螿中則蝸
3-3	遇事則糜沸	靑批 3개, 靑貫珠 1개	朱批 3개	遇事則糜沸	遇事則糜沸
3-4	謀人則鼠黠	靑批 2개, 靑貫珠 2개	朱批 2개	謀人則鼠黠	謀人則鼠黠
3-5	苟利則賊射	靑批 1개, 靑貫珠 1개	朱批 3개	苟利則賊射	苟利則賊射
3-6	小拂則豕突	靑貫珠 2개	朱批 3개	小拂則豕突	小怒則豕突
3-7	嬪女事戲謔			婦女事戲謔	婦女事嬉謔
3-8	童子設機括			童子設機括	童子設機括
3-9	背先而淫鬼		朱批 2개	背先而淫鬼	背先而淫鬼
3-10	嗜殺而佞佛		朱批 3개	嗜殺而佞佛	嗜殺而佞佛
3-11	書未離鳥跡	靑批 3개, 靑貫珠 2개		書未離鳥跡	書未離鳥跡
3-12	詩未離馱舌	靑批 3개, 靑貫珠 2개		語未離馱舌	語未離馱舌
3-13	牝牡類麀鹿			牝牡類麀鹿	牝牡類麀鹿
3-14	群朋同魚鱉			友朋同魚鱉	朋類同魚鱉
3-15	言語之啞嚶	靑批 3개	朱批 3개	言語之啞啾	言語之啞啾
3-16	靚象譯未悉	靑批 2개	朱批 4개	靚象譯未悉	靚象譯未悉
3-17	草木之環奇			草木之環奇	草木之環奇
3-18	羅含焚其帙			羅含焚其帙	羅含焚其帙
3-19	百泉之源滙			百泉之源滙	百泉之源滙
3-20	酈生甕底蟻			酈生甕底蟻	酈生甕底蟻
3-21	水族之不若			水族之不若	水族之不若
3-22	思及閼圖說			思及閼圖說	思及閼圖說
3-23	刀劔之款誌			刀劔之款銘	刀劔之款銘
3-24	貞白續再筆			貞白續再筆	貞白續再筆
3-25	地毯之異同	靑批 2개	朱批 2개, 毳를 球로 정정함	地毯之異同	地球之異同
3-26	海島之甲乙	靑批 2개	朱批 3개	海島之甲乙	海島之甲乙
3-27	西泰利瑪竇	靑批 2개	朱批 3개	泰西利瑪竇	泰西利瑪竇
3-28	線織而刃割	靑批 3개	朱批 3개	線織而刀割	線織而刀割

批點本 「海覽篇」(A) 과 『松穆館集』(D) · 『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2(A)본의 ‘外螿中則羯’에서(D)본과(E)본이 모두 羯을 蝸로 정정하고 있다. 羯은 흉노족을 의미하고, 蝸은 전갈을 의미한다. ‘外螿中則羯’은 외면으로는 벌처럼 쏘고 내면은 흉노족 같이 사납다고 하는 의미인데, 羯의 흉노족 대신 蝸의 전갈로 바꾼 것은 원래의 뜻

에 부합되지가 않는다.

둘째, 3-5(A)본의 ‘苟利則賊射’에서(D)본과(E)본이 모두 射를 馱로 정정하였다. 『說文』에서 ‘馱 弓弩發於身而中於遠也 從矢從身 射篆文馱 從寸 寸法度也 亦手也’라 하였으니,<sup>52)</sup> 馱와 射는 서로 같은 글자이다.

셋째, 3-6(A)본의 ‘小拂則豕突’에서 拂을 怒로 정정하였는데, 拂은 擊, 逆, 矯의 뜻으로 怒로 바꾼 것은 맞질 않다.

넷째, 3-7(A)본의 '嬪女事戲謔'에서(D)본은 嬪를 婦로 정정하였고, (E)본은 嬪를 婦로 戲를 嬉로 정정하고 있다. 嬪와 婦는 同字이고, 戲와 嬉는 뜻이 같은 글자이다.

다섯째, 3-12(A)본의 '詩未離駛舌'에서(D)본과(E)본이 모두 詩를 語로 바꾸고 있는데, 앞의 시구절과의 對句로서는 詩가 맞는 글자이다.

여섯째, 3-14(A)본의 '群朋同魚鱉'에서(D)본은 群朋을 友朋으로, 鱉을 鼈로(E)본은 群朋을 朋類로, 鱉을 鼈로 정정하고 있다. 群朋, 友朋, 朋類해석상의 차이는 없지만, 저자가 처음 기술한(A)본의 群朋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A)본의 鱉을(D)본과(E)본이 모두 鼈로 정정하고 있는데, 『說文通訓定聲』에 의하면 '鼈 字亦作鱉 作鱉'이라 하였으니,<sup>53)</sup> 鼈과 鱉은 같은 글자이다.

일곱째, 3-15(A)본의 '言語之啁嚶'에서(D)본과(E)본이 모두 嚶을 啾로 정정하고 있다. 啁嚶은 새가 울음을 합치는 소리이며 啁啾는 약기의 소리가 복잡한 것을 형용하는 것으로 啁嚶의 표현이 맞다.

여덟째, 3-17(A)본의 '草木之瓌奇'에서 (E)본은 瓌를 環으로 정정하고 있는데, 瓌가 맞는 글자이다.

아홉째, 3-20(A)본의 '鄙生甕底蟻'에서 鄙를 鄙으로 정정하고 있는데 같은 글자이다.

열째, 3-23(A)본의 '刀劔之款誌'에서(D)본과(E)본이 모두 劔을 劍으로 誌를 銘으로 정정하고 있다. 劔과 劍은 뜻이 같은 글자이다. 款誌는 금속이나 돌에 음각하여 새긴 기록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款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陰刻한 것을 款이라 하며 陽刻한 것을 識라고 한다. 銘은 쇠와 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고, 돌에 새긴 글을 銘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款誌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열한번째, 3-24(A)본의 '貞白續再筆'에서 (D)본과(E)본이 모두 筆를 筆로 정정하고 있다. 筆과 筆은 같은 글자이다.

열두번째, 3-25(A)본의 '地毯之異同'에서 (E)본은 毬를 球로 정정하고 있다. 毬와 球는 같은 글자이다.

열세번째, 3-27(A)본의 '西泰利瑪竇'에서 (D)본과(E)본이 모두 西泰를 泰西로 정정하고 있는데, 柳夢寅의 『於于野談』에 보면 歐羅巴리는 것은 방언으로 太西라 하였으니, 泰西가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열네번째, 3-28(A)본의 '線織而刀割'에서 (D)본과(E)본이 모두 刀을 刀로 정정하고 있다. 刀은 칼날 인이고 刀는 칼도이다. '線織而刀割'이라는 문장의 내용을 보면 '실로 짜고 칼날로 자른 듯이 정밀하다'라는 내용에 의거하면 批點本 「海覽篇」의 刀이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4단계는 이 시를 읊는 뜻은 변화하는 일본을 의식하여 자신의 말이 진실이니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로 맺고 있다. '鄙夫陳此詩'로부터 '線織而刀割' 까지이다. 이들 내용은 <표 4>로 체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2) 諸橋輟次 著, 大漢和辭典 권4.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3年(1968). p.13 射

53) 諸橋輟次 著, 大漢和辭典 권12.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3年(1968). p.1047 鼈

〈표 4〉 批點本 「海覽篇」의 4단계 구성부분의 비교

	批點本 「海覽篇」(A)	靑批, 靑貫珠 (李用休)(B)	朱批, 朱貫珠 (南玉)(C)	『松穆館集』 「海覽篇」 (金奭準校輯)(D)	『松穆館燼餘稿』 「海覽篇」(E)
4-1	鄙夫陳此詩	靑批 2개	朱批 3개	鄙夫陳此詩	鄙夫陳此詩
4-2	語俚義甚實	靑批 3개	朱批 4개	語俚義甚實	語俚義甚實
4-3	諺隣有大謨		朱批 3개	善隣有大謀	善隣有大謨
4-4	羈縻和勿失		朱批 2개	羈縻和勿失	羈縻和勿失
			註: 富矣麗矣 固海之材 虛 而不有 乃海之德 虞裳知 所擇哉		
	癸未長至後七日 書于勝本海舟中				
	松穆館主人				
	靑批 李惠竄 朱批 南時韞				

〈표 4〉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海覽篇」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며, 韻字는 전체 총 48자중 實, 失의 2자이다. 청비점과 주비점이 찍혀 있는데 남옥은 특히 주비점을 찍은 후에 결론부분에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언진의 결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결론부분을 보면 이언진은 ‘자신이 읊은 시는 하찮은 시이지만 진실을 담고 있으니 선린을 크게 도모하여 서로 평화 맺기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남옥이 붙이고 있는 주석을 보면, ‘넉넉하고 아름답다 진실로 바다를 묘사한 내용이며! 비어 두고 소유하지도 않는 것이 곧 바다의 덕이니 우상은 선택할 바를 알고 있도다’ 라는 것이다. 이는 이언진과 남옥이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생각은 일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인 교린외교를 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 · 『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4-3(A)본의 ‘諺隣有大謨’ 에서(D)

본과(E)본이 모두 諺를 善으로 정정한 것인데 諺은 善의 古字이다.

## 7. 결 론

虞裳 李彦瑱의 批點本 「海覽篇」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李彦瑱은 영조 16년(1740)~영조 42년(1766) 사이의 인물로 譯官四家로 알려진 시인이자 역관이다. 一名 湘藻라 하고, 자는 虞裳이며 호는 曇寔, 雲我, 松穆館, 滄起이다. 惠竄 李用休를 스승으로 학문을 배웠고, 표현 방식면에서 왕세정의 박학을 본받고 유불도 넘나드는 사상적 회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안파나 경릉파의 문학세계도 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詩書에 능했으나 남아 있는 문집은 불타고 남은 일부의 글을 모아 엮은 『松穆館集』과 『松穆館燼餘稿』뿐이다.

2) 『虞裳剩馥』은 위창 오세창이 이언진의

남아있는 필첩에 붙인 이름이며 필첩으로는 유일본이다. 겉표지는 쪽빛으로 물을 들이고 제목은 '虞裳剩馥'이라고 예서로 써 넣었으며 필첩을 쓴 남색의 천에는 '松穆館辭牘'이라고 전서로 써넣고 오세창 소장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필첩을 보관한 나무상자에는 '松穆館辭牘'이라고 전서로 써넣었다. 이 필첩에는 李用休와 南玉이 비점을 찍은 「海覽篇」과 일본 사행시의 일기 6편, 시 3편, 편지 5편이 실려 있다. 그중 비점본 「海覽篇」은 그의 대표작이고, 일기 6편과 편지 5편은 필첩에만 있으며 시 4편중에 3편은 문집에 실려 있고 1편은 새로운 것이다.

3) 이언진의 「海覽篇」은 영조 39년(1763) 10월 6일부터 영조 40년(1764) 6월 20일까지 통신사 趙曦을 수행하고 한학역관으로 일본에 사행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영조 40년(1764) 5월 28, 29일, 6월 1일, 2일, 7일, 8일 사이에 壱岐島 선상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 글은 五言詩로 구성하였으며 入聲에 속하는 48韻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기행시이다. 이 기행시는 네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일본의 지리적인 위치와 그 풍물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제2단계는 大阪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문명개화를 통해 운집한 세계의 物産들에 비유하여 서술하였다. 제3단계는 일본인의 편향적인 민족성과 종교를 말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일본 서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晋의 羅含, 北魏의 酈道元, 이태리의 思及(Giulio Aleni), 陶弘景, 利瑪竇(Matteo Ricci)의 저술에 모두 일본을 빠뜨리고 있어 다시 저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단계는 이 시를 읊는 뜻은 변화하는 일본을 의식하여 자신의 말이 진실이니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

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당부의 말로 맺고 있다. 이언진의 「海覽篇」은 연암 박지원이 「虞裳傳」에 포함시켜 그의 대표작으로 여겼고, 이번에 발견된 『虞裳剩馥』에는 그의 스승인 이용휴와 일본사행에 제술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南玉이 비점을 찍은 원본이 들어 있으니 이 글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도를 알게 해준다.

4) 批點本「海覽篇」을(A), 靑批, 靑貫珠(李用休)를(B), 朱批, 朱貫珠(南玉)를(C), 『松穆館集』 「海覽篇」(金奭準 校輯)을(D), 『松穆館燼餘稿』 「海覽篇」을(E)로 하여 구성의 4단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는 '坤輿內萬國'으로부터 '皆往往山出'까지이다. 韻字가 총 48자중 列, 髮, 毳, 沫, 物, 瀟, 日, 橘, 鐵, 秩, 別, 雪, 質, 出의 14자이다. 이용휴가 찍은 청비점이 남옥이 찍은 주비점에 비하여 후하게 찍었다. 청비점은 2개, 3개, 4개를 찍었고, 靑貫珠를 친 것도 두 군데나 된다. 남옥은 주비점을 많이 찍지 않았는데, 그중 4개를 찍은 곳은 한군데 뿐이다. 1-5 '齊魯之逢掖'의 옆에는 夷盛夏弱의 주석을 달아서 이민족이 번성하고 中夏가 약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8 '或兜離侏沫'에서는 沫을 侏로 교정을 하고 있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4곳인데, 뜻이 적절하지 않아서 교정된 것, 같은 뜻의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 고자를 상용자로, 상용자의 속자를 고자로 바꾼 예가 있다.

둘째, 2단계는 '大坂大都會'로부터 '秘怪恣恍惚'까지이다. 韻字는 총 48자중 渴, 鞞, 瑟, 骨, 截, 奪, 埒, 活, 綴, 窟, 烈, 設, 撒, 匹, 發,

憂, 節, 惚의 18자이다. 大坂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개방적인 무역현장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며 청비점 및 청관주와 주비점이 다른 부분에 비해 많다. 그중에서도 2-17 ‘鬣腹飄幔張’에서 2-34 ‘西雲露肢節’까지의 9韻에는 청비점 및 청관주와 주비점이 동시에 집중되어 있어 문장과 표현이 매우 우수함을 드러내고 있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0곳인데, 같은 뜻의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 속자를 사용한 것, 뜻이 적절하지 않아서 교정된 것, 본자를 사용자로 바꾼 것, 제대로 교감된 것, 내용상 더 적합한 글자로 바꾼 것, 의미가 비슷한 다른 한자를 사용한 것, 문장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정정의 의미를 상실한 것 등의 예가 있다.

셋째, 3단계는 ‘其民裸而冠’로부터 ‘線織而刃割’까지이다. 韻字는 전체 총 48자중 羯, 黠, 突, 括, 佛, 舌, 繫, 悉, 帙, 蟻, 說, 筆, 乙, 割 의 14자이다. 이응휴의 청비점과 청관주 및 남옥의 주비점이 동시에 강조된 것은 일본의 민족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3-3

‘遇事則糜沸’부터 3-6 ‘小拂則豕突’까지와 마테오리치의 『萬國輿圖』를 언급하는 3-25 ‘地毯之異同’부터 3-28 ‘線織而刃割’까지이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4곳인데, 의미상으로도 교정이 잘못된 것, 뜻이 같은 다른 한자를 사용한 것,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정정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은 뜻의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 글자를 잘못 교감한 것, 외국어 표기를 정정한 것 등의 예가 있다.

넷째, 4단계는 ‘鄙夫陳此詩’로부터 ‘線織而刃割’까지이다. 「海覽篇」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며. 韻字는 전체 총 48자중 實, 失의 2자이다. 청비점과 주비점이 찍혀 있는데 남옥은 특히 주비점을 찍은 후에 결론부분에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언진의 결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批點本 「海覽篇」(A)과 『松穆館集』(D)·『松穆館燼餘稿』(E)의 「海覽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한 곳이며 古字를 상용자로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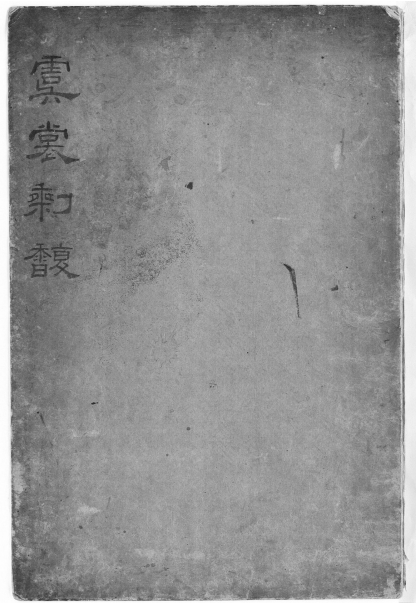
## 참 고 문 헌

姜東燁, 「虞裳傳」에 투영된 李彥瑱과 그의 世界認識.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1995), pp.55-76.  
姜明寬, 朝鮮後期 閭巷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金甲起, 譯官四家論-脫朱子主義的 詩學.

한국문학연구 13집, 동국대, 1990.  
金瀟, 「松穆館燼餘稿跋」  
金祖淳, 「李彥瑱傳」  
羅鍾晚, 惠寔의 文藝認識과 書畫論. 「東洋古典研究」 第13輯(2000, 6), pp.446-451.  
劉維翰, 『東槎餘談』

- 朴趾源, 「虞裳傳」
- 李德懋, 靑莊館全著, 卷 34 淸脾錄 卷3 李虞裳條
- 이동순, 李彥瑱 시의 독창성 고찰 -세계관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고전연구」 10집(2004), pp.247- 270.
- 李尙迪, 李虞裳先生傳(閩巷叢書 5, p.269)
- 이상진, 朝鮮後期 閩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認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李相鎭, 李彥瑱의 「衚衕居室」考. 「韓國漢文學研究」 第12輯(1989) pp.317-348.
- 李用休, 「松穆館集序」
- 李用休, 『惠寔居士詩集』
- 李彥瑱 著, 『虞裳剩馥』. 自筆稿本.
- 李彥瑱 著, 金奭準 校輯, 『松穆館集』 2卷 1册, 木板本. 紅藥樓, 哲宗 11년(1860).
- 李彥瑱 著, 『松穆館燼餘稿』 1册. 木活字本. 哲宗 11년(1860).
- 張之琬, 「題松穆館稿集後」
- 全百燦, 松穆館 李彥瑱의 作家意識: 〈衚衕居室〉을 중심으로. 「漢文學研究」 제17집 (2003) pp.
- 鄭武龍, 18세기 後半 閩巷詩壇의 文學論 研究: 이언진·洪愼猷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9(1999) pp.249-311.
- 鄭珉, 『東槎餘談』에 실린 李彥瑱의 諷刺자료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32輯(2003) pp.87-123.
- 鄭後洙, 譯官 李彥瑱의 文學觀. 「漢城語文學」 5號(1986), pp.29-41.
- 정 훈, 虞裳 李彥瑱의 漢詩 研究. 전북대 대학원, 1995.
- 諸橋輟次 著,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3年(1968)
- 趙曦, 『海槎日記』
- 趙熙龍, 「李相藻傳」
- 皮正姬, 李彥瑱의 생애와 詩 연구. 성신여대 한문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8, 1991. p.86.
- 韓泰文, 李彥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國語國文學」 第34輯(1997, 12. 31), pp.41-60.

〈부록〉 〈그림 2〉 ~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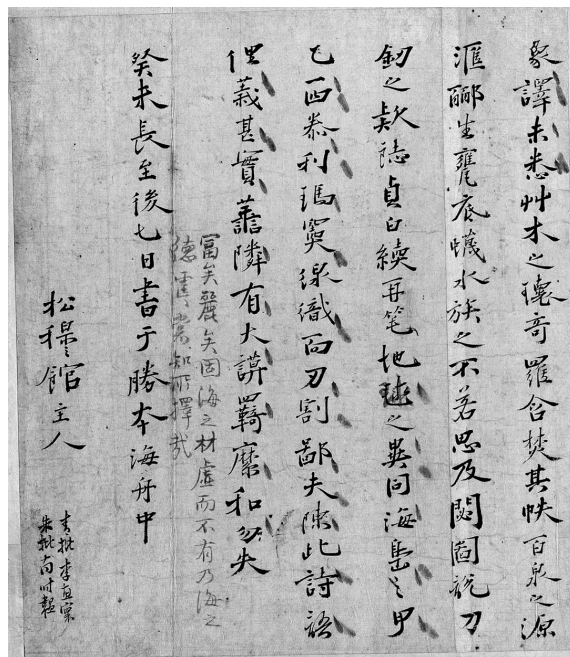
〈그림 2〉 위창 오세창 책 『虞裳剩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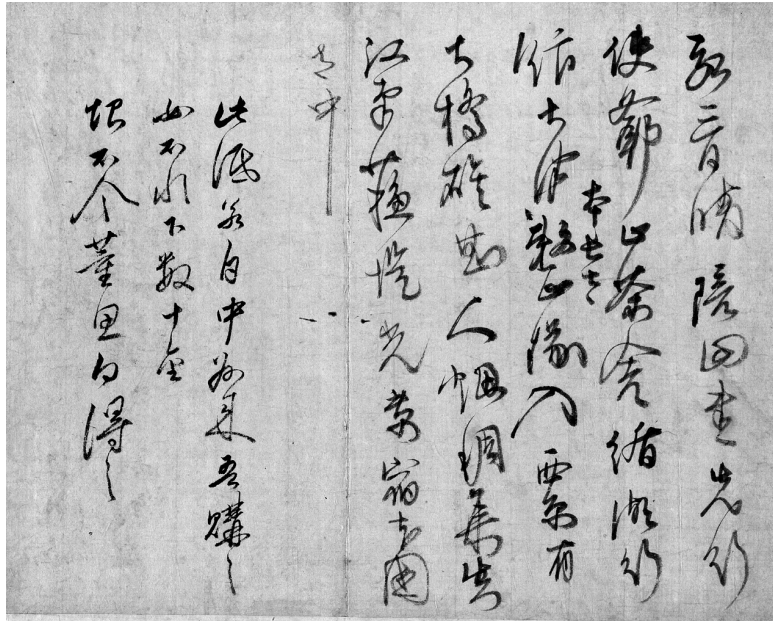
〈그림 3-1〉 「海覽篇」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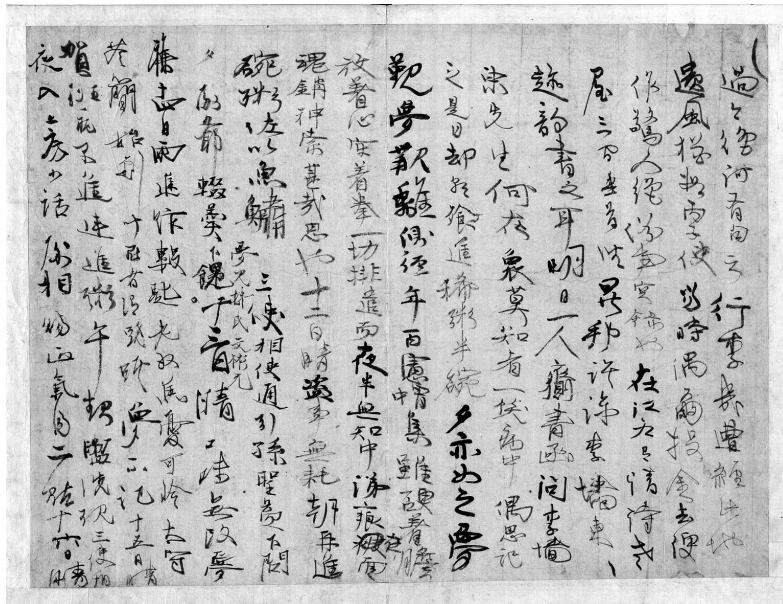
〈그림 3-2〉「海覽篇」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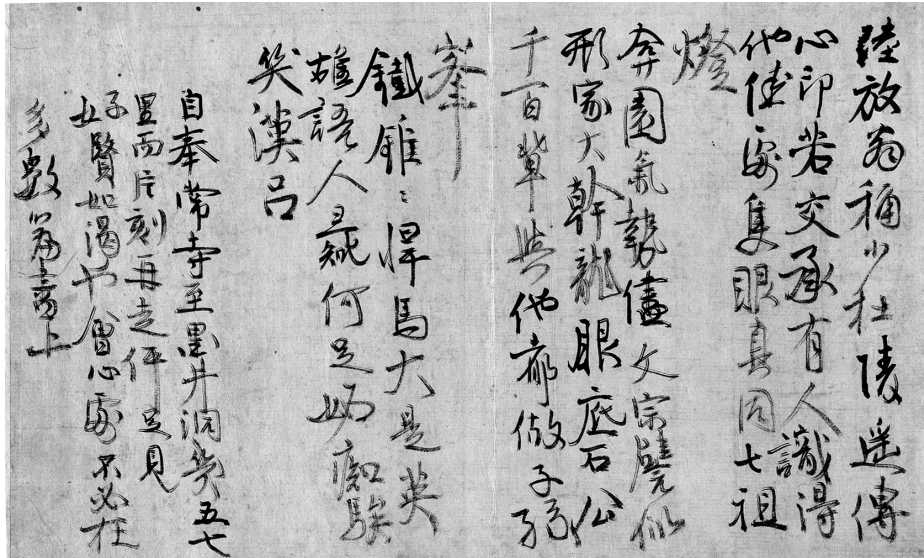
〈그림 3-3〉「海覽篇」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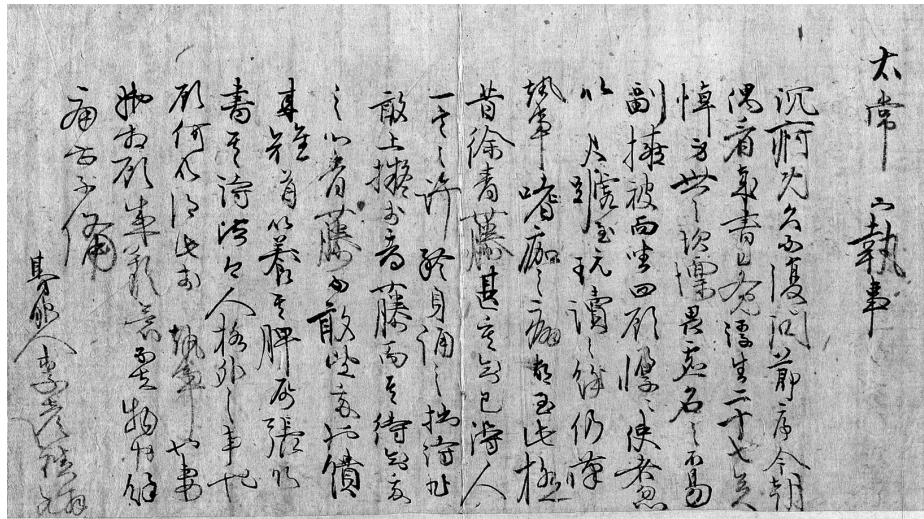
〈그림 4〉 英祖 40년(1764) 4월3일 사행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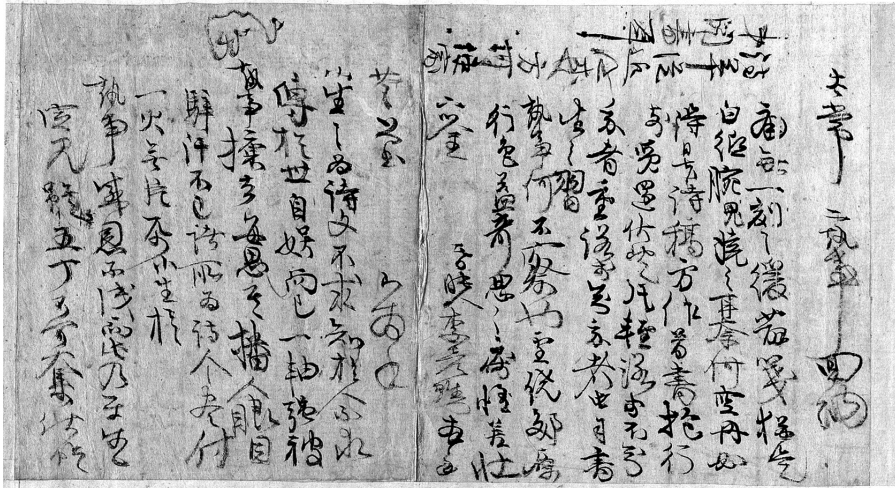
〈그림 5〉 癸未使行時 6일간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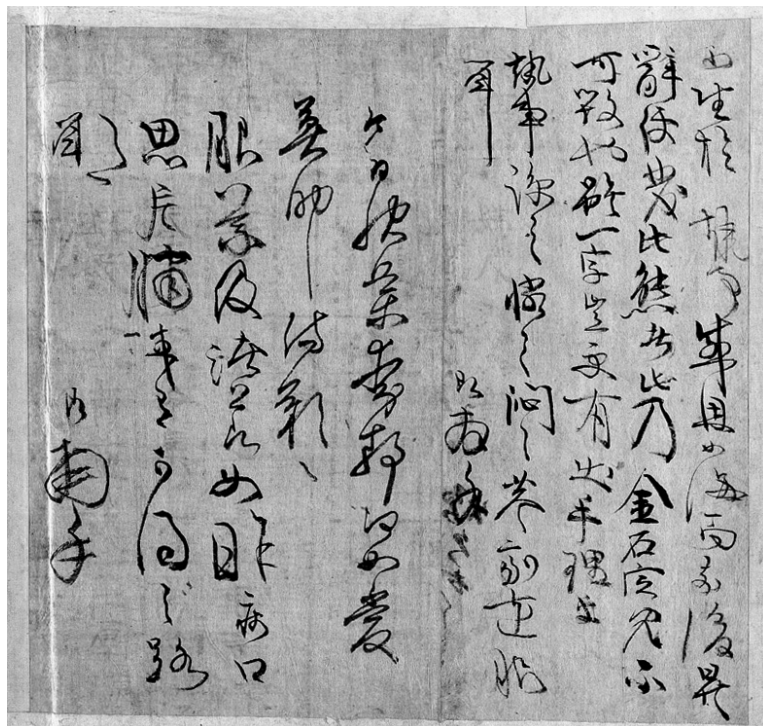
〈그림 6〉「陸放翁」, 「奔園」, 「武后」의 시



〈그림 7-1〉 청성 성대중에게 보낸 편지 1



<그림 7-2> 청성 성대중에게 보낸 편지 2



<그림 7-3> 청성 성대중에게 보낸 편지 3